

特 輯

東南Asia의 尿素市場 現況 및 1989/90年 까지의 展望(1)

(Source: Nitrogen No.147, 1/2月 1984)

東南Asia 地域 즉 Burma, Indonesia, Kampuchea, Laos, Malaysia, Philippines, 泰國, Vietnam 으로 구성된 이 地域의 尿素生産能力 및 消費開發의 側面에서 볼 때 가장 流動性이 많은 地域中 하나이다.

이 地域의 窒素質 肥料 消費는 過去 10年동안 急成長을 이룩했는데 尿素는 全體 窒素質 肥料 消費量中 80%以上을 차지함으로 壓倒的인 比率로 나타나고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Indonesia는 國內 生産能力의 擴張에서 비슷한 增加를 이룩함으로써 尿素消費를 急成長시켜 왔는데 이는 이 地域의 消費 成長의 主要原因이 되고 있다.

이 地域의 다른 國家들인 Burma, Malaysia, Philippine 도 Indonesia와 같은 規模는 아니더라도 生産增加를 이루지 못한채 상당한 消費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尿素 肥料은 이 地域에서 벼의 耕作面積이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窒素質 肥料中 選好되고 있는 肥種이다. 쌀 生産이 農業分野에서 優位를 차지하고 있는 Burma 와 같은 나라에서는 農耕上의 바람직 함과 原始的인 農業環境에서 使用하기에 알맞는 理由때문에 尿素는 유일한 窒素質 供給源이 되고 있다. 東南 Asia 는 最近 景氣沈滯로 因하여 이들 나라의 대부분이 經濟 依存度가 큰 輸出商品의 需要 減退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尿素 消費 成長率은 景氣沈滯 以前보다 緩慢해졌다.

그러나 이 地域全域에 걸쳐 폭발적인 人口 增加 現象은 持續적인 需要成長을 期待해도 좋을 것이다.

各國家別 展望을 보면 다음과 같다.

o Indonesia - 가장 主要한 열외

Indonesia 는 東南 Asia 에서 窒素質 肥料의 生産과 消費, 兩面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現在 Indonesia 는 이 地域內 Ammonia 生産能力의 81% 尿素 生産能力의 91%를 차지하고 있어 結果적으로 Ammonia 와 尿素生産이 비슷한 比率이다.

消費 側面에서 Indonesia 의 占有率은 壓倒的인 것은 아니지만 全體 窒素質 消費量의 58%, 그리고 尿素 消費量의 67%를 차지

함으로써 이 地域에서 가장 重要한 市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1970 年代에 尿素消費는 年平均 18%라는 놀라운 比率로 成長했는데 이는 주로 食糧作物分野를 促進시키고 流通體制를 改善시키며 供給壓迫을 완화시키려는 政府의 政策과 그리고 肥料價格을 政府가 보조함으로써 肥料價格 對 作物價格 比率를 유리하게 導入시켰기 때문이다.

1977/78 年부터 1981/82 年까지 Indonesia 는 全體地域 消費 成長率의 92%를 차지했는데 이는 3基의 新規 尿素工場이 總 786,000 成分屯의 生産能力을 가지고 同時에 竣工稼動 됨으로써 消費가 크게 伸張되었기 때문이다. 食糧 自給自足은 오래전 부터 政府의 優先政策으로 되어 있으며 이로 因하여 많은 돈과 資源이 이 나라의 主要 食糧인 쌀의 生産量을 增加시키기 위해서 消費되었다.

1975 年 이후 肥料補助金만 하더라도 20 億弗에 達하고 있으며 새로운 灌溉施設의 設置나 既存 灌溉施設의 改善에 所要된 經費만 해도 約 1 億 5 千萬弗에 이르고 있다. 全體 肥料 消費量中 約 65%가 벼에 消費되고 있으며 15%가 Estate Crops 에 그리고 2次作物과 채소에 約 20%가 消費되고 있다.

最近 쌀 收穫은 1979 年 부터 1981 年까지 연속적으로 記錄的인 生産을 達成해 왔다. 1970 年代 대부분의 쌀 消費는 生産보다도 더 急速히 年平均 13%로 增加했는데 이 때문에 Indonesia 는

世界 最大의 쌀 輸入國이 되었다.

그러나 70 年代의 石油 畝재 덕분 과 尿素 消費의 急成長으로 Indonesia 는 1980 年 2,030 萬屯 1981 年 2,230 萬屯의 쌀을 收穫 함으로써 自給自足の 分턱에 이르는등 현저한 轉換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1982 年 以後 狀況은 急變했다. Indonesia 의 食糧自給 自足 目標는 年間 約 300 萬名씩 增加하여 1 億 5,000 萬名에 이른 人口와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야만 했다.

1983 年 Indonesia 는 쌀 生産에 決定的인 要因이 되고 있는 日氣가 불순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世界 最大의 쌀 輸入國중의 하나로 判명되었다.

1982 年 不規則的이고 장기적인 한발은 쌀 生産量을 전년수준보 다 못미치게 했으며 1983 年 生産高도 같은 水準에 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83 年 쌀 生産이 不振했던 것은 몇가지 要因이 作用했기 때문 이었다.

첫째 雨期가 늦게 始作되었기 때문에 雨期栽培 期間中 約 6 週 또는 雨期の 1/4 이 損失된 結果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반드시 雨 期作物의 25 %가 減損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正常的인 生 産水準에서 減少되었을지도 모른다.

둘째 1983 年度 作物은 病虫害의 被害를 당했으며 肥料消費도

1982年 11월에 政府補助金이 삭감됨에 따라 減少되었을 것으로 豫想된다. 이같은 結果로 Indonesia는 1983년에 約200萬屯의 쌀을 輸入한 것으로 推定되고 있는데 이는 1981년의 543,000屯, 1982년의 332,000屯의 輸入量에 비해 월등히 높은 實績으로 적어도 5億弗의 金額을 消費함으로써 國際收支에 큰 타격을 주었다. 最近까지도 Indonesia는 1980년에 44弗의 黑字를 낸 것을 정점으로 黑字의 國際收支를 維持해 왔다.

그러나 1981/82년에 Indonesia는 28億弗의 赤字를 보았으며 1982/83년에는 70億弗의 赤字가 났을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1982年 Indonesia의 原油 輸出은 世界市場에서의 供給過剩과 OPEC의 quota 등으로 17%가 減少되었으며 또한 非石油 產品인 고무, 목재, 커피, 주석 등의 輸出金額도 12.7%가 減少되었다.

結果적으로 GNP의 成長率은 1982년에 約3.5%로 減少되었을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이는 1968年 以後 最低水準이다.

1983年 계속적인 石油市況의 弱勢로 經濟成長은 3%未滿으로 鈍化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 消費成長의 制限은 國內供給量이 增加될 때까지

輸出稅入이 減少함에 따라 政府는 1983年 會計年度에 必須食糧에 對한 補助金 폐지, 公共料金の 凍結, Energy 補助金の 삭감을

斷行함으로 緊縮豫算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斷行된 肥料 補助金の 削減으로 對農民購入價格은 kg 당 平均 70 Rps 에서 90 Rps 로 거의 29%가 上昇되었다.

이같은 措置로 政府는 1982年度에 세웠던 肥料補助金 4,150 億 Rps 를 600 億 Rps 만큼 減少되기를 希望하고 있다.

農民들에 대한 肥料價格 引上은 쌀價格을 7.4%를 引上시킴으로써 일부는 補償을 받고 있다.

肥料消費 成長率에 對한 短期展望은 밝지 못하여 또한 成長率도 現在 建設中에 있는 3基의 尿素工場에서 生産이 되기 前까지는 回復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肥料 輸入은 지난해 3月 對美 Dollar 에 對한 Rupia 의 換率을 27.5%나 評價節下 함으로써 國際收支가 弱化되어 制限을 받게 될 것으로 豫想된다.

그래서 短期間의 需要量은 주로 供給分이나 또는 구상무역협정에 依한 輸入量으로 充足시켜야 한다.

事實上 Indonesia 는 47年의 主要한 産業 Project 를 이미 취 소시켰거나 연기시켰으며 또한 現在의 肥料 Project 의 進척에 影響을 미칠 수 있고 또 1980年代末에 豫想되는 政府의 新規 Project 를 줄일 수도 있는 더욱 嚴格한 措置가 必要하게 될지도 모른다. Indonesia 의 長期經濟展望은 世界 商品價格의 回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長期的인 面에서 肥料消費 增加는 의심

할 여지없이 增加되는 國內 利用力에 의하여 자극을 받게 된 것이며 아마도 國內 供給力에 크게 左右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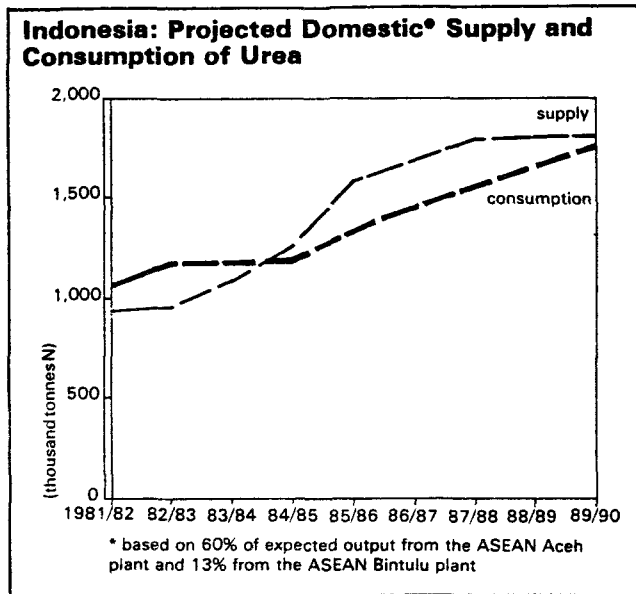
政府가 肥料價格對 作物價格比率을 回復시킬 수 있는 범위는 財政壓迫 속에서 農業分野에 주어지는 優先權에 달려있다. 확실히 肥料補助金 삭감에 依해서 절약된 600 億 Rps 는 16 조 6,000 億 Rps 의 1983/84 年度 政府計劃 歲出費에 比하면 보잘 것 없는 額數이며 그리고 1982 年과 1983 年의 收穫量이 저조함에 따라서 政府는 農業生産性を 높이고 肥料消費를 促進시키기 위해서 優先權을 높일지도 모른다. 1982 年 初에 Indonesia 의 農業省은 1980 年代末까지 尿素消費增加率을 年平均 12%로 計劃했다. 이같은 狀況은 1970 年代末의 경우와 같이 上昇經濟와 좋은 氣象條件이라면 可能했을지도 모른다.

現年度の 市況은 消費增加가 期待되지 않고 KALTIM 1 工場의 生産開始가 1 年間 연기되어 豫想했던 供給增加가 아직 實現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均衡을 維持할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正確한 Balance 는 Indonesia 의 이웃國家들에 대한 輸出販賣와 年間入札購買가 不確實하기 때문에 斷定하기가 어렵다.

1984/85 년에는 約 120 萬 成分屯에 達하는 消費로 約間의 增加가 豫想되며 그 以後부터는 消費가 상당히 增加될 것으로 보인다.

Indonesia 의 經濟는 1985/86 年에 가서 西方世界の 景氣上昇에



影響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消費成長이 以前의 比率에 까지 到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330,000 成分屯의 窒素質 肥料 國內 供給量 增加와도 연관될 것이다.

1989/90 年까지 Indonesia 市場은 尿素 約 100,000 成分屯의 年間 增加만이 吸收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되며 상당량의 輸出餘力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既存 生産能力이나 이미 發表된 增設能力을 기준으로 할때 Indonesia 市場은 1989/90 年에 가서 다시 不足한 傾向을 보일 것으로 豫想되는데 적어도 한件이나 또는 2件의 Project가 1990 年 以前에 着手될 可能性이 높다.

每年 100,000 成分屯의 消費增加를 充足시킬 수 있는 生産을 위하여 Indonesia 는 2 年마다 한개씩 새로운 工場의 建設이 不

可避하다. 이미 確實치 못하나 제 3 KALTIM 工場과 第 2 Kujang 工場을 建設하려는 計劃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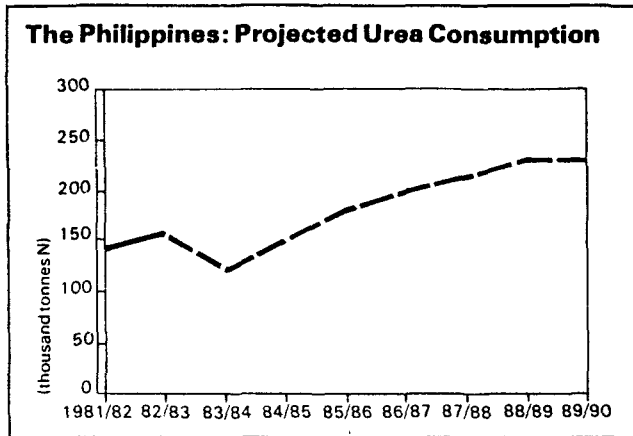
이같은 生産施設의 擴張時期가 1990 年代初에 Indonesia 가 尿素 輸入國이 될 수 있을지 또는 없을지를 決定하게 될 것이다.

o Philippines : 輸入에 계속 依存

Philippines 은 急騰하는 肥料價格과 農民들의 資金壓迫이 가까운 장래의 生産 극대화 戰略보다는 投入資金의 절약을 선도할지는 모르나 ASEAN 國家中 Indonesia 다음으로 큰 第 2 의 尿素 市場이 되고 있다. 尿素는 全體 窒素質 肥料 消費量의 거의 70 %를 차지하고 있으며 planters Products 의 非生産的인 設備를 폐기시킨 1976 年 以後 需要全량을 輸入에 依해서 充足시켜왔다. 더우기 가까운 장래에는 尿素生産施設의 建設計劃이 없기 때문에 Philippines 은 적어도 1989/90 年까지 계속 輸入製品에 依存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觀點에서 Philippines 은 대부분의 이웃 國家들이 적어도 窒素質 肥料의 自給度を 向上시키려는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例外的인 國家이다.

그러나 現在 Bintulu 와 Aceh (各各 13%)에 建設中인 2 件의 ASEAN 尿素 Project 에 理解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工場에서



生産되는 物量은 이 나라의 尿素 消費開發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國內 生産設備은 過去에 輸入原料價格과 其他 投入資材費用이 上昇했기 때문에 建設되지 못했으며 가장 重要的 것은 10%에 達하는 生産業者 稅金과 더불어 特히 國際市場에서 暴落했던 無稅의 輸入製品과의 競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1983年初에 國內 産業界의 要請을 인정하고 生産業者에 대한 稅金を 폐지하는 한편 必須的인 原資材의 輸入關稅를 면세하는 등의 일련의 양보조치를 취했다.

(肥料에 대한 現金 補助가 1982년에 비록 減少되었으나 輸入 製品에 대한 면세형태로 계속되고 있음)

이 措置는 黃酸, 磷酸, 硫安, 複合肥料의 生産施設을 가지고 1984年 下半期에 稼動시킬 豫定으로 着手되고 있는 비교적 最近의 肥

料工業인 거대한 Philphos Project 로서는 다행한 일이 되고 있다.

Philippines 의 農業分野는 GNP 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輸出收入의 50%, 그리고 勞動力의 60%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主要한 分野로 되어 있다.

상당한 努力이 이 分野에 集中되었으며 1990年 以前까지도 農業은 최우선 순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1983 ~ 87年까지의 이 나라의 計劃은 農業發展의 擴大와 加速化가 要請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約3億弗의 世界銀行基金이 必要하게 되며 이같은 狀況으로 肥料消費 展望이 고무적이다.

過去 5年間の 窒素質 肥料 消費는 年間 210,000成分吨에서 233,000成分吨으로 增加됨으로써 安定되어 왔다.

그러나 1983/84年에는 輸入에 따른 財政壓迫 때문에 尿素 消費가 減少될 것으로 보여 全體 窒素質 消費는 約170,000 吨으로 떨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消費成長은 Philippines이 1985/86年 以後부터 年間 55,000 N 吨을 供給받게 되는 ASEAN Project 가 完工될 때까지는 回復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